

생태사회와 불교

생명, 그리고 모든 것이 연관된 종합적 이해

‘온생명’ 중중무진 상호의존 시스템

종이 한 장에 담긴 의미

“만일 당신이 시인이자라면 이 한 장의 종이 안에서 구름이 흐르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구름 없이는 비가 없으며, 비 없이는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 없이는 우리는 종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종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름이 필수적입니다. 만일 구름이 이곳에 없으면 이 종이가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름과 종이가 서로 공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략)

만일 우리가 이 종이 안을 더욱 더 깊게 들여다 보면 그 안에는 햇빛을 보게 됩니다. 햇빛이 그 안에 없다면 숲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햇빛이 이 종이 안에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종지와 햇빛은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계속해 바라보면 우리는 그 나무를 베어 그 것이 종이가 되도록 제재소로 운반해 간 나무꾼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밀가루를 봅니다. 그 나무꾼이 빵을 매일 먹지 않고는 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빵을 만드는 밀가루를 이 종이 안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 나무꾼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안에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라볼 때 이 모두가 없이는 이 한 장의 종이 존재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더욱 더 깊게 들여다 보면 우리들이 그 안에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우리가 그 종이를 보고 있을 때 그 종이는 우리 시각의 일부인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이 종지와 함께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차명상 템플스테이(사진 왼쪽)와 미곡사 저비명상템플스테이(사진 오른쪽). 명상은 자기 수행 이외에도 인드러밍의 세계관을 사유할 수 있는 중요한 수행법이다.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때문이다.

물건하나, 행위하나의 우주적 존재
연기적 깨달음은 우주적 각성 의미
한 생명 생존에 무생물도 존재해야
‘살생하지 말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스텝과 정치, 사회, 소비시스템이 진화되어 있어줘야 한다.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나무를 자르는 사람의 부인이 있어야 하고 아이들도, 이들이 먹은 쌀과 곡식, 과일, 반찬, 그것을 만드는 모든 사람이 있어야 한다. 모두 연관되어 있다. 자 이렇게 종이 한 장이 여기에 오기까지의 연관된 범위를 공간적으로 확장하면 보이지 않는 세균, 미생물부터 흔하게 멀리 수많은 벌레까지 모두가 연관되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과거의 과학 기술의 발전, 사회시스템과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과 그때그때의 자연 사람 새, 짐승들, 그것도 인류가 존재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더 거슬러 사람이 살기 이전의 모든 것이 존재했어야, 현재의 종이 한 장이 내게 올 수 있는 것이다. 내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은 이들 모든 것의 공동작품인 것이다. 우주적 작품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어떠한 물건도 가격을 매길 수 없다
그렇다면 종이만 그러할까? 내 손에 들려있는 ‘볼펜’도 다시 처음부터 연관된 것을 따져본다면 종이와 똑같이 공간적 시간적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만들어낸 합작품이자 예술품이다.
이뿐이다. 내손에 들어있는 컵, 접시, 핸드폰, 컴퓨터 등등. 내가 눈으로 만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공간적 시간적으로 모든 것과 연관되어, 관계 맺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전 우주적으로 빚어낸 창조물인 것이다. 다시말하면 물건하나, 행위하나의 결국 우주적 존재이며 엄청난 사건인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물건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무 한 그루, 불한방울, 종이한장 모두 우주적 작품인데 어떻게 함부로 버리고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연기적 깨달음’이란 바로 이러한 생명에 대한 우주적 각성을 의미한다.
우리가 오늘날처럼 물건에 가격을 매기는 것은 인류가 교활히 발생하기 시작한 불과 몇천년전 부터의 일이다. 내가 100원을 주고 산 노트가 과연 100원만 가치를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가격은 사회적 합의의 가치일뿐이다. 고유의 가치라고 할 수 없다. 그 고유의 가치는 우주적인 가치이며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이것을 오늘날 산업사회처럼 ‘쓰레기’라고 말하며 ‘쓸데없다’, ‘쓸모없다’ 고 말할 수 있는가?
인도에 성지순례를 가면 인도장사꾼들이 많은 외국순례객들을 바가지로 씌워 평상가격 보다 몇배 높게 판매하는 것을 보고, 속았다고 억울해하고 분개한다. 그러나 가격이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현재의 합의일 뿐 본래 가격이란 없다. 어떻게 물건의 가치를 돈의 양으로, 가격으로 판정할 수 있는가? 바로 그러한 가격의 개념 때문에 ‘싼 것, 하잘 것없는 것, 쓸데 없는 것’이라는 관념이 생겨 물건을 함부로

하고, 쉽게 버리며 쓰레기를 발생하는 생활양식을 만들어온 것이다.

생명이란 꿈, 이 모든 것이 연관된 그 총체
자 그럼 생명이란 무엇일까? 사람하나도 생명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 한명만으로 살 수 없다. 다른 생물이 존재해야 한다. 하나 하나는 개체생명이다. 그러나 한 생명이 생존하기 위해 다른 사람뿐 아니라 다른 생명들이 있어야 한다. 또한 동물, 식물등의 생물만이 아니라 돌, 파람, 물등의 무생물들도 존재해 줘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기되어 있어야만 개체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하나 낱생명 개체생명만이 생명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의존하여 서로 존재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온생명’이다.
이것이 생명이라면 ‘불살생’을 게을리하는 우리들에게 ‘살생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동물을 죽이거나 곤충을 죽이지 말라는 말로만 해석할 것인가? 그것으로만 인식하기에는 불교의 가르침은 더 깊다. ‘온생명’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돌, 바람, 물 등의 무생물도 낱생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대한 시스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낱날 총총히 중중첩첩이 연기되어 변화 상호의존하는 이 시스템이 온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거나 파괴하는 행위가 바로



유정길 (예코부터) 전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탄탄한 스님의 ‘평화로운’에 나온 이 말씀만큼 연기적 세계를 잘 표현한 글이 있을까? 다시한번 이 ‘종이 한장’이 여기에 오기까지 관련된 것을 살펴보자. 우선 나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르는 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운반하는 자동차가 있어야 한다. 또 자동차가 다닐 도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무를 쪼개는 공장이 있어야 한다. 종이를 만드는 펄프 공장도 있어야 한다. 그것을 책으로, 종이로 만드는 제지회사도 있어야 한다. 또한 그것을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유통회사도 있어야 하고, 이 종이를 판매할 문구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 문구점까지 버스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야 한다. 그래서 나는 구입하여 내손에 종이 가 들려져 있다.
자 그럼 종이 한장의 연관이 이것만일까? 그렇지 않다. 나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 한다. 또한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구름도 있어야 한다. 구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다의 증발과 육지의 풀과 관목의 증산작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람도 불어야 하고 태양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달은 필요 없을까? 아니다 달도 있어야 한다. 달도 지구에 영향을 미쳐 밀물과 썰물이라는 자연현상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면 화성은 필요없을까. 더 나아가 목성, 토성 저 멀리 안드로메다 성운은 필요없을까? 필요하다. 그것들이 있어야 태양계가 존재하게 되고 그 태양만 태양이나 금성과 화성, 달이 저 정도 거리에서 공전과 자전을 하며 지구의 사계절을 만들고 현재의 기온을 유지시켜 나무가 생장

불교계에 새로운 선물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2012 아이센스 탄생!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2012년 신제품 경전학습기

불경을 일부씩 공부하다 보면, 일관성이 떨어지며 기억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아이센스 경전학습기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영송경과 영송의범을 일관성 있게 편집하여 탑재 하므로써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화면을 보면서 듣고 반복할 수 있도록 체계성과 정확한 강사의 음성을 들어 학습할 수 있도록 짜여진 시청각 경전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영불(念佛), 영송(念誦) 모음

- 영송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아산해연선사 발원문, 불설 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찬계, 초발심사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계,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대장회문, 대불정능염문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필양심주경, 보광삼매론
- 영송의범: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 49재편, 시식 · 영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 · 중국어 · 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콘텐츠 탑재
- 녹음기능: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한 음질의 녹음기능

신한M&B 경전학습기 사업부 Tel. 02-488-2061 P.h 010-5699-8725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농협 : 302-1737-6214-71 김보균(2~3개월무이자 카드결제가능)